

# 제5회 학생 인권 토론회

‘선도부 폐지에 관하여’

- ▶ 일시 : 2017. 4. 8.(토) 10:00 ~ 12:00
-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 ▶ 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토론회 순서

- ▶ 일시: 2017년 4월 8일(토) 10:00 ~ 12:00
-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시 간	내 용
09:30~10:00	• 접수 및 안내
10:00~10:10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 말씀 - 조병호(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
10:10~12:00	• 사회 - 엄기두(군산여자고등학교 교사) • 기조발제 “학생 선도부에 대한 담론” - 이충민(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 토론자1 - 황채영(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 • 토론자2 - 한해솔(군산고등학교 학생) • 토론자3 - 이예빈(학산고등학교 학생) • 토론자4 - 곽호윤(원광고등학교 학생)
12:00~	• 정리 및 폐회



# □ 목 차 □

기조발제 학생선도부 운영에 관한 담론 / 7

이충민(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토론자 1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사이좋은 학교 · 자유로운 학교 / 17

황채영(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

토론자 2 인권 선도부의 폐지를 논하다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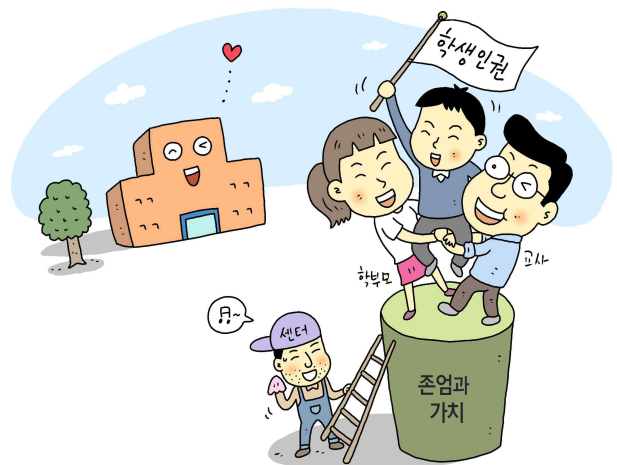
한해솔(군산고등학교 학생)

토론자 3 선도부의 개선 / 33

이예빈(학산고등학교 학생)

토론자 4 선도부 폐지만이 정답인가? / 41

곽호윤(원광고등학교 학생)





기조발제

## 학생선도부 운영에 관한 담론

이충민(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 학생선도부 운영에 관한 담론

이충민(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 I.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교육이념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 제2조는 우리 교육의 이념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민주국가의 발전 및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민주시민이며, 민주시민은 공공의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은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국가마다 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상이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정치교육’, 영국과 미국은 ‘시민교육’, 일본은 ‘공민교육’이라 지칭하며 실천하고 있다.(심익섭, 200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실천되고, 그 외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확정안을 살펴보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네 가지를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 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곧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민주시민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다만, 교육이념의 완전한 실현은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일과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교육공동체는 상호 간의 끊임없이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의 민주주의 실현,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여러 과제 중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학생선도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민주적·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와 수평적 자치활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관

점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 II. 선도부 운영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상황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6년도에 학생선도부 운영 관련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동위원회의 방문조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선도부 운영과 관련한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sup>1)</sup>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새 학년 새 학기에 선도부를 폐지하고 상점 위주의 상벌점제 개선, 학생 생활교육의 수평적 자치 전환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였다. ‘학생생활개선 3대 정책’으로 등교시간 정상화, 두발규제 개선, 보충·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강화에 이은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선도부와 운영과 관련하여 사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의견조치 등을 거쳤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에 선도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2017년 2월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생선도부와 관련한 사안조사를 실시한 후, 각 학교에 선도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상·벌점제를 폐지하면서 이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2017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선도부와 운영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와 타 시·도교육청의 선도부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 또는 안내 내용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2017년 2월 기준)

아래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외 3개 교육청의 선도부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하였다.

1)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및 각 급 학교에 학교 등교 문화 개선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함(인성건강과, 2015.7.14.)

## 1.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6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교육 중점 내용

#### □ 학생 생활지도

1. (생략)
2.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학생 선도부 및 유사 형태의 활동 전면 폐지
    - 동료 학생 지도 및 선도활동
    - 정문 및 교내에서 두발·복장 지도
    - 동료 학생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등 일체
  - 겉옷 및 교복 안 색티셔츠 착용 규제 완화
  - 두발 규제 완화
  - 학생 체벌 및 언어폭력 금지
  - 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실내화 착용 지도 (이하생략)

## 2. 경기도교육청

- 교사의 교권은 학생에 대한 수업권, 평가권, 지도권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권은 교육활동에 관한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교사가 아닌 자에게 함부로 위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임
- 규범적으로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내용을 볼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지도와 훈육·훈계 등의 행위는 법령이나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학교장’의 권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학교장의 학생지도권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및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에 의해 교사(교원)들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 내 교육활동 과정 중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과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자에게 함부로 위임되거나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교육적으로도 ‘학년’이란 교육과정의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일 뿐임에도, ‘선배’라는 이유로 또는 ‘선도부원’이라는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훈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부당한 위계질서 문화를 학습하게 하는 등의 비민주적 교육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의 한 내용인 학생지도권을 ‘학생자치부,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 학생인성부’ 등의 명칭을 가진 학생조직에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각 급 학교에 요청한 바 있음

### 3.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 선도부 운영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5년도에 진행한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칙 전수 점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밝히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징계 및 지도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학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에 국한됨
- 따라서 생활교육에 관한 일체의 활동은 교사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교문지도, 교내·외 순회 등을 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 및 관리적 성격의 활동 보조 금지
- 다만, 학생들이 학생회 사업 및 대표기구 의결 등을 통해 생활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활동을 스스로 기획·실천하는 것은 가능함

※ 학생 선도부의 운영 자체가 인권침해인가가 아니라 학생 선도부의 권한 행사의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4.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 선도부 운영 자체가 인권침해인지 여부가 아니라 학생 선도부의 권한 행사의 근거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의견에 공감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지도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학생지도권은 교사

(교원)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 절차에서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교육목적상 학생의 지도와 훈육·훈계는 법령이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교사(교원)으로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학생자치기구(선도부)에 학생지도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검토의견을 드림

(1안) 학생지도 권한의 일부를 학생자치기구(선도부 등)에 위임 행사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 폐지하고, 학생자치기구에 학생지도를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지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

(2안) 학생자치기구의 캠페인, 토론회 등 자치활동을 존중하고 부득이 학교에서 학생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교사의 지도 시 보조하는 활동은 인정하되 상벌점 부과, 개인물품(화장품)의 압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Ⅲ. 학생선도부 운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학생선도부(이하, ‘선도부’라 함)에 관한 발제문을 구상하면서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선도부’를 검색해 보았다. 여러 검색 결과물 중에서 ‘베이스추천 선도부에 안 걸리는 메이크업 비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 게시글을 읽어보니 등곳길에 선도부로부터 화장한 것을 지적 받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한 소개와 글쓴이의 사용 후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베이스추천 선도부에 안 걸리는 메이크업 비법!

요즘은 학교 정문에서 선도부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잡아내잖아요.  
좀 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만지기도 하더라구요.  
베이스하면 얼굴에 잔여 느낌이 나니까.  
근데 톤업도 되고 모공도 가려주면서,  
얼굴 만지면 부드러워서 뭘 발랐는지 티가 안 나는 베이스가 있어요.  
10대 메이크업용으로 딱 인 베이스 추천 갈게요~(후략)

<출처: 네이버(<http://cafe.naver.com/cosmania/17443782>), 검색일:2017.03.27.>

이 글은 학생들이 선도부의 지도·단속활동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자기통제,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일부 권리(예: 피선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가 제한될 뿐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과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제10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는 점(제37조 제2항), 그리고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또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도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선도부는 학교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함) 상 학생회 소속의 부서로서 대개의 경우 학내 질서 유지 및 교풍 확립 등에 관한 사항을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도부의 구성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선도부장과 선

도부차장, 선도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년 구성은 1·2학년, 2·3학년, 1·2·3학년으로 학교마다 다르다. 학생회 소속이지만 선도부원 등의 임면은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학생회가 심사하고 담당교사가 임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활동은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이와 같은 선도부의 구성방법과 운영은 학생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선도부의 활동 내용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이다. 선도부는 대개의 경우 ‘학내 질서 유지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을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은 생활규정 상의 용의복장, 출결사항의 지각, 소지품(화장품, 담배, 길이나 폭을 줄인 교복, 휴대전화 등), 점심시간 교문출입, 흡연자, 식생활관 질서유지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다.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지도권한이고,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교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것으로 교원의 권한이다. 이러한 교육목적의 지도권한을 교원이 선도부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학생선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등으로 구성되고 징계의결을 포함한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다. 선도부는 생활규정 상으로는 학생회 소속의 학생자치활동부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학생선도위원회가 담당하는 실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부속 부서가 되는 셈이다.

둘째, 선도부가 다른 학생들의 생활규정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이를 담당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선도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관계가 늘 존재한다. 고학년 선도부로부터 폭력적인 지도를 받은 사례, 지도 받은 학생으로부터 욕설 문자를 받은 선도부의 사례, 교사의 소지품 검사에 도움 활동을 하였다가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사례 등은 선도부 활동이 학생들 간의 갈등관계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선도부가 겪는 인권침해문제이다. 선도부도 학생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 등교지도를 위해 정해진 등교시간 보다 30~40분 일찍 등교하는 것, 등교지도와 같은 외부활동 시 추위와 더위(땀별)에 노출되는 것, 점심시간 식생활관 질서유지 활동을 위해 4교시 수업종료 전에 식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것 등 선도부 활동으로 학습권, 휴식권,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권위적인 학교문화의 잔존이다. ‘어린이 신문 굴렁쇠’의 편집장인 최일주 선생은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선도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가 만약 선도부가 된다면 자기도 똑같이 되갚고 싶다고 말한다.’, ‘선도부야말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건 힘 없는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작으나마 학생들은 여기에서 권력의 달콤함을 맛볼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인권탄압이 또 있을까?’(요즘세상, 4~5쪽)라고 말하고 있다. 권력에 기반을 둔 선도부 활동이 가지는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그 잔존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는 의견이다. 선도부 활동으로 선도부가 얻게 되는 이익은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역 기재, 표창대상자로의 선정 등이다. 많은 선도부가 선도부 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선도부 유지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선도부 운영은 교육공동체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도부 운영에 대해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 또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결과는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자 1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사이좋은 학교 · 자유로운 학교**

황채영(부안여자고등학교)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사이좋은 학교·자유로운 학교

황채영(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선도부 폐지 찬성 측 부안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황채영입니다.

▷ 들어가며

‘선도’는 올바르게 좋은 길로 이끌,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함, 남보다 먼저 도착함,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부’는 학교나 단체 등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교칙이나 단체의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라고 정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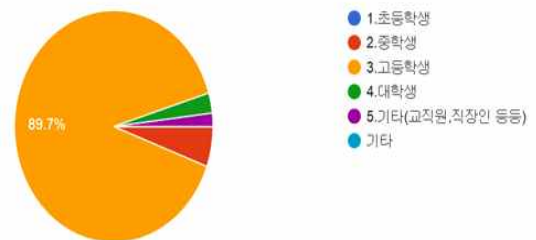
선도부는 앞장서서 구성원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바른길로 이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개인 SNS를 통해 선도부 폐지에 관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약 일주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안, 군산, 고창, 전주, 익산 등 14개 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선도부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선도부였거나 선도부활동을 했던 학생 21명 포함한 총 107명이 설문에 응해주셨습니다.

1.연령대 (응답 107개)



▷ 선도부 폐지 찬성 이유

첫 번째. 선도부 학생들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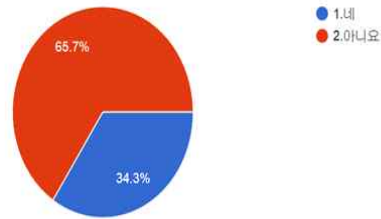
소수 선도부 학생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 반면 학교 안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다수의 선도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면 규칙을 지키지 않기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은 지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을 지켜서 걸리는 일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 각 학교 선도부 학생들의 대다수가 정해진 시간외에도 규칙을 잘 지키나요?  
(응답 10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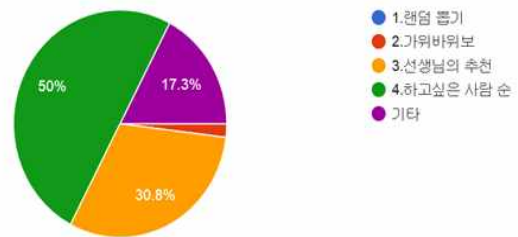
두 번째. 잘못된 선도부 학생 선발 방식.

학생인권조례나 교칙에도 선도부 학생의 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에 선도부 학생 선발 방식이 모호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하고 싶은 사람 순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도부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 선도부 학생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요? (응답 10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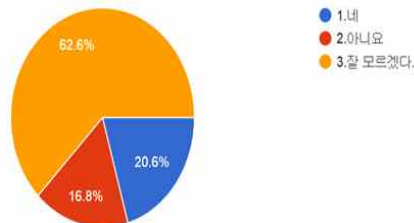


세 번째. 정확하지 않은 기준 (사람마다 다른 관점).

불분명한 기준으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3cm라는 규정을 직접 자로 재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지 않고 또한 사람마다 신체조건이 누구는 허벅지가 길고 짧고 다르기 때문에 치마 무릎 위 3cm라는 규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기 위해서 선도부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거나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만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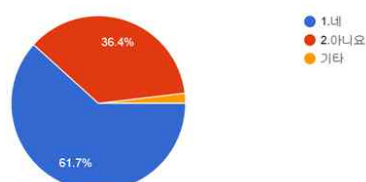
4. 교내에서 선도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응답 107개)



네 번째.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문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을 보거나 겪은 적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자면 선도부라는

5.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을 보신적 또는 겪으신 적이 있나요?  
(응답 10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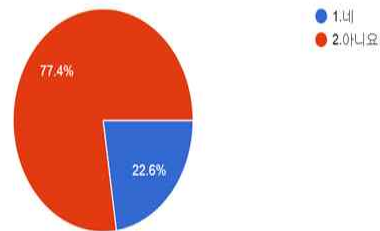
권력을 남용하여 친한 친구를 봐주거나 개인적인 사적 감정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도부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후배의 하극상, 친구와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따릅니다.

다섯 번째. 학생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없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공평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과반수가 공평하지 않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선도부 학생이 동급학생을 지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학생이 같은 신분의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도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선도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아침등교를 빨리 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배식을 위해 수업 시간 빨리 나와야하고 정해진 정규시간 밖을 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교문을 지켜야하며 학교행사가 있으면 자리정돈 및 질서유지를 시키느라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선도부 학생들의 쉼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서 잡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도부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과, 잘못된 선도부 학생 선발 방식, 정확하지 않은 기준,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문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 선도부 학생들의 인권침해로 인해 선도부를 폐지해야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선도부 폐지 해결방안

학생들의 자유와 공평한 기준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선도부학생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선생님들이 대신한다면 선도부 학생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 질 수 있고 학생들보

다 좀 더 정확하고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도하는 건 당연한 선생님의 몫이며 학생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없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있기에 생활 지도는 선생님이 담당하는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선도부 폐지 기대 효과

첫 번째.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의 갈등 해결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이 때로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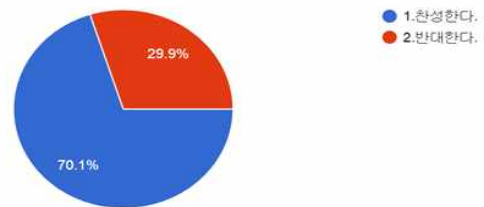
선도부를 폐지한다면 선도부와 선도부가 아닌 학생들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선후배 사이와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고 학교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도부 학생 이었던 학생들의 인권 보장

선도부 활동이 없어짐으로써 아침에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등교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쉴 수 있으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고 선도부 하는 활동 시간 대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3. 선도부 폐지에 찬성하시나요? (응답 107개)



#### ▷선도부폐지 반대이유 반박

설문조사에서 107명 중 32명이 반대 입장으로 선도부 폐지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의 선도부활동은 생활기록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선도부가 폐지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하나요?

→선도부는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스펙활동이 아닌 교칙을 어긴 학생을 바로잡는 역할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선도부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늘리고 참여한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2. 같은 신분으로서 일탈하는 학생을 가장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같은 신분의 학생을 잡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3. 선도부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의 태도가 좋지 않아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

→선도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학생들의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근거이다.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선도부가 아닌 다른 해결방안을 세운다.

4.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며, 선생님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며 필요한 존재의 일부분이며 친근하게 다가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5. 학교에 규칙을 지키려면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

→굳이 선도부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

▷선도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호한 규칙은 수정하며 선도부 학생 선발 기준을 하고 싶은 사람수와 가위바위보가 아닌 공평한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도부 선발방식을 고치기 위해 선도부에 관한 규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선도부 학생들도 선도부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설 수 있게 활동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규칙에 대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임으로 학교규칙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선도부가 폐지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갈등이 사라져 사이좋은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내 스스로 지켜 자유로운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인권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알고 지켜야합니다.





## 토론자 2

# 인권 선도부의 폐지를 논하다

한해솔(군산고등학교 학생)



# 인권 선도부의 폐지를 논하다

한해솔(군산고등학교 학생)

## 1. 나의 눈에 비친 선도부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선도부를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선도부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잡아내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돌곤 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혼잡한 급식실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선도부는 급식실 통제와 함께 아침마다 학교 정문 앞에서 6명 정도의 선도부원들이 정문 양 옆에 일렬로 서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인사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매일 나와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선도부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인사시키게 하고 학생들의 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 나 또한 한 선생님께서로부터 교복 자켓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을 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과거에는 복장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정문 옆 조그만 주차장을 토끼땨으로 뛰게 했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게 하여 복장 지적을 당한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던 학생부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서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은 없어졌다. 나는 아침마다 학교를 등교하면서 선도부들의 인사를 받으며 선생님에게는 복장 지적을 받으며 간다. 선도부들의 인사를 받을 때에는 학교의 구시대적 정책에 창피함을 느껴 교복의 깃을 올리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싶어진다. 또한 선생님에게 복장 지적을 받을 때에는 3학년 되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교복 자켓을 입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억울할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선도부의 행동은 타 지역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 타 지역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는 모순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선도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현 시대가 추구하는 교육이다.

## 2. 인간 존엄성을 위배한 선도부

우선 선도부는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일조하고 있다. 인간 존엄성이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유신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직접 통행금지 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서에 잡혀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등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한 억압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과거 유신 정권과 군부 정권이 했던 행동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라며 비판한다.

허나 우리는 과거 이런 행동들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학교의 선도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선도부 역시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불량하다고 판단 될 시 규제를 가하고, 그 외의 규정들을 어길 시 징계를 내린다. 이는 엄연히 인간 존엄성에 대해 위배되는 행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므로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 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 존엄성의 의미는 인간 그 존재 자체의 존중이다. 통제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우열이 있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우열의 기준은 나이, 학력, 재력, 지역, 종교, 신체적 결함, 정신적 결함 등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비롯된다. 차이에 따라 다른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독일이 했던 행동과 같다. 나치독일은 자신의 민족인 게르만 족은 위대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민족이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여러 점령지에 수용소들을 설치해 유대인들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홀로코스트란 동물이나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학살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로 인해 600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 나갔다. 이 사태의 원인은 자신의 문화는 우월하고 상대의 문화는 열등하다는 자문화중심주의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이는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 존엄성의 파괴이다.

이처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대학살을 비롯한 인권 유린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선도부가 하는 행동들이 대학살을 초래하는 행위는 물론 아닐지라도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권 유린 행위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권 의식, 교양, 지식 등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 3.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선도부

선도부는 또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선도부의 주 업무는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잡고 복장을 단속하며 담배 피는 학생들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본은 직위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사고방식이다.

권위주의 시대란 권위를 이용해 상대를 짓누르거나 권위에 의해 복종했던 시대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신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 시기이다. 두 정권 모두 군인이 기존의 정권을 무력을 이용해 전복시켜 장악하여 생겨났다. 군대는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계질서가 뚜렷하다. 두 정권은 군인이 세운 정권이므로 위계질서가 뚜렷했다. 하지만 이 위계질서는 권위주의로 변질 되었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었다. 정권을 쥐고 있던 군부세력들이 국가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왕정을 세운 것이었으며 그 속에서 국민들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군부의 부도덕함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잡아내어 고문하였으며 심지어는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기도 했다.

위의 모든 것이 권위를 통해 약자를 억누르는 권위주의 시대의 결과였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잔재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사장과 알바 사이에서의 권위와 고객과 점원 사이에서의 권위가 있다. 이 둘의 경우를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이야기 한다. ‘갑질’이 바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갑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즉 우리는 권위주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 간부라는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선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도부는 학생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선도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니 학생회 역시 그 시대의 잔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 선도부는 학생회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선도부가 학생회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선도부의 설립 취지와 선도부를 제외한 학생회 및 회장단의 설립 취지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선도부의 설립 취지는 학생들이 규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규율을 잘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 교사들의 판단이다. 이와 반대로 학생회나 회장단의 설립 취지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들을 수는 없기에 이를 대표하는 학생을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학생회이다. 국가에 비유하자면 회장단이나 학생회는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지금 일부 국회의원을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학생회 역시 이와 같다. 학생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선도부와는 목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같은 학생회에 속했다고 해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 4. 교사들의 대리인. 선도부

선도부의 또 다른 특징은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회와 차이를 두는 부분이다. 선도부의 주된 역할인 교복 단정 지도, 흡연 적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외출 금지 등은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선도부가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다른 학생회와는 다른 특징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 학생은 이에 대해서 이익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은 스승과 제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민간인의 모습을 본다. 주로 기업은 강자이며 악이고, 민간인은 약자이며 선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물질을 추구하고 현세 지향적이며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민간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정의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측면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자가 악이며 약자가 선이라는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치 않다. 그래도 우리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보다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강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약자는 자신의 이익을 강자에게 뺏길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 되어있고 이를 알면서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결국 뺏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약자들을 지켜주고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멋지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도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도부는 약자인 학생들을 규율에 따르게 하도록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강자인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대변하기 위해서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다.

선도부의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복을 학교에서 지정한 시기에 맞춰 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일부 학교에서는 처벌을 하기도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염색 혹은 머리카락의 길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은 복장과 두발을 단속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바뀌듯이 교복도 시기에 맞춰서 입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길거나 염색 혹은 파마를 하면 불량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부터 시작한다. 애초에 학생들의 자유보다 학교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다 같은 교복을 입고 모두 다 파마가 안 된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단정해보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물론 단정해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단정한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과는 상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단정한 것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같이 같은 모습을 한 것이 오히려 억압된 분위기를 상징해 억압적인 학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12조 1항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도 담겨있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생활의 자유에는 복장과 두발에 대한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선도부를 통해 벌이고 있는 셈이다.

## 5. 선도부를 대체할 제도, 없음

그렇다면 선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도부의 역할

은 계속 말해왔듯이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안은 필요하지 않다. 대안으로 자치법정을 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치법정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자치법정은 학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이 변호사, 검사, 판사를 맡아 재판을 하여 해당 학생에게 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별로 일정기간동안 운동장에 있는 잡초를 뽑는다거나 학교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한다. 자치법정은 학생이 학생의 죄질을 심사한다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선도부도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법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도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회에서도 경찰들이 모든 시민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여 검문하고 감시하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체포해서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겨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학교 역시 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면 된다. 학교 생활규정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드는 약속이며 여기에는 이 규정을 어길 시 받는 징계의 규정도 명시한다.

## 6. 그러므로 선도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선도부가 하는 활동은 대부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는 선도부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하며 선도부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이고,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선도부를 폐지하기를 주장하며 이로써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 토론자 3

# 선도부의 개선

이에빈(학산고등학교 학생)



# 선도부의 개선

이예빈(학산고등학교 학생)

## 1. 선도부 폐지에 대한 의견은?

선도부의 폐지보다는 존재는 하되 선도부의 개선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 내 규칙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도부는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2. 선도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우선 선도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선도부라는 단어 자체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교육의 일환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선도부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선도부를 바른생활부 또는 질서실 청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의 선도부는 부서의 명칭 그대로 학생들이 바른 생활과 질서를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부의 긍정적인 이유

첫 번째, 학생이 주체가 돼서 규율을 정하고 단속함으로써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칙을 정할 때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선도부가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규칙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험악한 분위기의 선도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선도를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좋은 선도 활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질서를 학생들이 직접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규제되는 것보다는 선도부 학생들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고 또래 친구들은 그것을 보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선도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도부가 폐지된다면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에 선도부가 없다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게 경고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재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데 불편한 규칙을 다 지키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벌점을 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규칙을 어기고 다닙니다.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선도부가 계속 경고를 하고 제재를 한다면 틀이 잡혀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위의 의견은 선도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 3. 개선해야 할 점

첫 번째, 대부분 학교는 학교가 정한 규율에 따라 선도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무회의에 학생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내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은 규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거세져 선도부의 선도활동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질서를 학생들이 직접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학생들이 직접 학교 질서를 세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이 선도부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질서는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들이 나서서 잡아주고 질서를 잘 지키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질

서를 잘 지키게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선도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도부가 폐지된다면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선도부 학생들의 많은 선도 활동 덕분에 학교가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도부가 폐지된다면 규칙을 잘 지키던 학생들은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인 선도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 중에 불편함이 있는 규칙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재하는 선도부가 없으므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은 적을 것입니다.

#### 4. 선도부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이제 선도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선도부를 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선도부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함께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선도부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맞게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신고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자신의 친구나 또래 같은 학년 동급생, 다른 학년 동급생들을 신고하는 와중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공평하지 않다.

학교마다 규칙이 있지만, 선도부는 각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불평합니다. 만약 “치마가 무릎선 위이면 안 됨.”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선도부의 기준에서 한 선도부는 무릎 위고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선도부는 짧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다들 공평한 기준으로 규제되지 않아 일반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갑니다.

세 번째,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벌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선도부는 학생 인권을 침해합니다.

선도부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교문에 나와 지도를 하는데 “빨리

걸어라”, “주머니에서 손 빼라”, “머리핀을 다시 끼워라”라는 명령 식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학교에서는 선도부 학생들이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규정보다 머리가 긴 학생들을 잡으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부 학생들은 머리가 긴 학생들에게 오리걸음 등 단체기합을 주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도 활동은 선도부 학생들의 교육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

많은 학교에서 아침에 교문 지도를 합니다. 다른 일반 학생들의 교문 지도를 하려면 선도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일찍 나와 교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찍 나온다면 학생의 수면권, 사생활자유권을 침해받습니다.

교육권 또한 침해받습니다.

아침 일찍 선도 활동을 하다 보니 1교시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찍 집에서 나와야 하다 보니 잠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선도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선도 활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선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4교시 중간에 나가는 하는데 그렇게 나가고 점심 선도활동을 하면 5교시도 늦게 들어옵니다.

이뿐만 아닌 하교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교시에도 일찍 나가 선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1교시, 4교시, 5교시, 마지막 교시까지 수업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도 선도활동을 위해 각 반을 돌아다니며 선도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도활동을 한다면 선도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쉬는 시간 휴식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도부를 학생통제기구로 활용한다.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도부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도부는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고,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일종의 학교생활규정 자율지킴이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학교에선 두발용의복장 규제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학생 인권을 학생이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선도부 구성을 학교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마다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도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도부 학생들은 두발검사를 비롯해, 구두, 스타킹, 양말, 명찰 등 용의복장까지 검사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을 벌끼우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생활지도 및 규칙지도는 생활규정 선생님이 규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선도활동을 하면서 질서를 스스로 규제하며 자체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도 배울 수 있지만, 학생의 가장 큰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선도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의견은 선도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 5. 개선해야 할 점

이 의견에서 개선하여 선도부가 존속된다면 더 좋은 선도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도부를 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친구란 나쁜 길로 갔을 때 잡아주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규칙을 어기며 나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바른길로 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친구야말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해해 준다면 더욱 좋은 친구 관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더욱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어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서든 고치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도부가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일반 학생들은 존중하고 일반학생들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선도부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선도부 학생의 교육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그 시간대에 선생님들이 대신 역할을 해준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선도부를 학생통제기구를 활용하는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도부가 자체적으로 벌을 주거나 그러는 일이 없고 선생님이 나서서 일반 학생들을 규제해 주시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6. 마무리

현재 시행되는 선도부는 학생들의 불만도 많고 문제도 발생하지만 없다면 교육 환경에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양면성을 가진 역할입니다.

선도부의 부정적인 면만 바로 없애기보다는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개선하다 보면 나중에 선도부가 없더라도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이 협력하여 학교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학생들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선생님들은 학생을 존중하되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차 폐지 해 나간다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선도부가 개선되고 차차 우리의 태도가 나아져 선도부가 없이도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면 선도부는 폐지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학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자 4

# 선도부 폐지만이 정답인가?

곽호윤(원광고등학교 학생)



# 선도부 폐지만이 정답인가?

곽호윤(원광고등학교 학생)

<중도일보> 2016년 11월 24일 인천 교육청에 따르면 선도부가 학생 간 위계 문화를 조성 한다는 비판 여론을 받아 들여 2016년 3월 7일 일선 학교에 선도부를 폐지하고 별점 제도를 자율적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도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어도 교육청이 직접 선도부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선도부 폐지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는 학생들의 두발,교복 상태 등을 체크해 별점을 주던 선도부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던 등굣길이 행복한 등굣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굣길을 행복으로 변화시킨 듯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교복 안에 자유복을 입기위해 아침마다 옷을 신경 쓰고 의류비 지출도 늘어 부모님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며 학생들 사이에도 유명 메이커 옷에 따른 위화감 조성의 위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즉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은 우리에게 학생으로서의 행동에 따른 책임감도 부여 합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으면 명찰 등 학년별 표시로 학교 안에서는 선후배간의 예의도 잘 지켜지고 그러다보면 선후배간의 친목도 더 좋아 질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저의 신분 노출로 더 신중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학교는 집단 활동을 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 그 사회의 법칙이나 규칙을 따라주어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지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도부가 함께 학생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내에 교칙을 위반하며 교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매일 당해서 이게 피해인지조차 구별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 맞고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에 대한 어떠한

한 보상, 심지어 사과조차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이 그 상황을 막으려고 신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되기도 합니다.

선도부 학생들은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과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그 또래의 학생들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발견할 수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쉬쉬하며 몰래 넘어가려는 부정적 행위를 선도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선도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별점을 주어 교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강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별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회하에 별점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도부의 또 다른 활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014년 기사임)

부천의 \*\*중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선도부의 명칭을 바른 생활부나 질서 실천부로 변경하도록 제시하여 이 중학교는 바른 생활부라고 부른 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는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의 마음이 풀리는 시간에 무단외출을 막고 외출증이 있는 사람만 나가게 해주며 학교를 돌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중에는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 학교 주변의 어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 학교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도부로 인하여 흡연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선도부가 선생님의 지도 하에 있어 학생들의 교복을 지도하고 흡연을 단속하기 때문에 선도부의 권력남용에 의한 폐해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선도부가 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평생 건강을 생각한다는 면도 선도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 적 생각으론 학교 명예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흡연은 선도부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선도부 때문에 흡연 학생이 금연으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도부에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배 피우는 횟수가 점점 줄어 들 것입니다.

**선도부는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위의 부천\*\*중학교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회 학생들이만 참여하던 학생 자치에 선도부, 자치법정의 순으로 참여하고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학생회가 입법부, 선도부가 행정부, 자치법정이 사법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 학생 자치의 역사가 길지는 않아서 걸음마 수준이라 말은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학생 기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운영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주장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선도부는 학교의 앞잡이?**

그러나 생각을 하다보면 선도부가 과연 학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도부를 싫어하며 필요 없다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도부 내의 비리가 이 무용론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친한 친구나 후배가 선배에게 별점을 주지 못 하는 경우)

하지만 선도부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도부는 학생 자치의 첫 걸음입니다.

선도부내의 비리도 어느 정도의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선도부나 신념이 철저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부의 비리를 막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부 활동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학교에 7시30분까지 등교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은 교칙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만 집행만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늘 행동과 언행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선도부 역시 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래 학생들에게 지적을 하고 명단을 적는 일이 유쾌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느 누구도 지적을 당하지 않고 명단이 없는 날은 흐뭇하고 보람 있습니다. 선도부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교라는 작은 사회 집단 안에서 스스로 학생의 의무와 학생으로서의 소양으로 바른 태도로 교칙을 지켜 소수가 아닌 전체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생활하도록 돕고자 하는 부서입니다.

몇몇의 어긋난 행동의 학생들이 교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칙을 지키지 않아도 눈치껏 행동을 하며 교칙의 불필요함을 강조해서 학교 교칙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과연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선생님이 하면 되지...' 또래 친구에게 지적 당하고 명단이 적히면 자존심도 더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 한 것처럼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일이 너무 많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래들이 보는 상황판단도 또래라는 같은 학교 학생 신분으로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도부는 청소년 탈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마한 머리, 염색머리로 어른과 비슷한 체형으로 다닌다면 술과 담배를 지금보다도 더 구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 교칙아래 선도부가 아침 등굣길에 지적을 하니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좀 더 긴장하여 머리와 단정한 옷 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게 꾸미고 예쁘게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좋아하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의 복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도부가 아침마다 교복 및 두발 단속, 흡연 단속 등...

선도부폐지의 반대만을 보지 마시고 선도부가 있음으로써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이 건전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따뜻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잔재, 학생간의 권위적 횡포 보다는 선도부를 앞서 말한 부천\*\*중학교처럼 바른생활부로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부 폐지로 인한 2017년 2월 1일 <동아일보> 기사의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밋빛 학교생활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별점제 및 선도부 폐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했듯이 옷에 대한 자녀들의 민감함, 흡연 문제로 학부모의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단점이 몇 가지 있더라도 선도부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완벽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면 이름을 바꿔서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통제를 받으며 순수한 행정부의 역할만 하게 될 거라 생각 됩니다.

#### 참고로

저희 원광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광고등학교는 선도부가 학생회의 부서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선도부는 대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칙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며

대위원회 구성은 각 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반의 실장들이라서 각 반의 학생들의 상황과 요구를 학생회 자치에 반영이 원활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선도부의 구성은 학생회에서 선출한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도부의 주요 활동은 흡연 지도, 핸드폰 소지 검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칙을 어긴 학생들 명단은 자치 법정으로 넘겨지며 자치 법정의 판결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